

“고흥인구 10만 도약...군정 비전 완성의 해”

올해 새해설계 공영민 고흥군수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등 8대 군정 방향 제시 드론·UAM 산업·3대 교통망 구축 등 경제 활성화

“인구 10만 달성과 군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흥의 밝은 미래를 열겠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가 신년사를 통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는 고흥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민선 8기 군정 비전인 ‘2030년 고흥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시간이었다면, 2025년은 민선 8기 군정 비전과 핵심 사업을 완성해 가는 중요한 해”라

고 밝혔다. 이어 공 군수는 8가지의 군정 운영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 및 클러스터 완성을 위해 우주산업·산·학·연 캠퍼스를 조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민간 발사체와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를 차질 없이 추진해 고흥을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둘째, 드론·UAM 중심도시 위상을 강화한다. 드론택시 관광 상품화 및 물

류 취약지역 드론 배송 서비스 상용화를 통해 드론·UAM 산업을 고흥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드론택시 농공단지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대를 위해 60~70만평 규모의 대규모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해 청년 창업과 정착을 지원하고, 농가 소득원을 발굴하며 농수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고흥만 간척지에서 벼농사가 금지되기 때문에 고흥형 대규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가 용이해졌다. 이와 관련 스마트팜 관련 신규 사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넷째, 3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

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고속도로, 고속철도, 국가산단 연계도로의 조기 완공을 통해 접근성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 및 귀농어귀촌인 정주여건을 확충한다. 고흥읍과 나로우주센터를 연결하는 31.7km의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연계도로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조속히 4차선으로 확·포장할 방침이다. 다섯째, 고흥관광 1천만 시대 개막을 위해 드론택시를 활용한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 대규모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그리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해 고흥을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들 계획이다. 여섯째, ‘더 두텁고 더 촘촘한’ 복지를 실현해 어르신, 아동, 여성, 장애인 등 모든 계층을 위한 복지를 확대하고, 노

인 일자리 창출, 청년 지원 정책,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등을 통해 따뜻한 복지체계를 실현한다. 일곱째, 고흥사랑상품권 확대,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 농수산물 판로개척,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힘쓴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소통 행정을 펼친다. 친절하고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군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신뢰를 받는 행정 문화 정착에 노력할 방침이다. 공영민 군수는 “위기를 기회로 삼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오직 ‘군민 행복’을 위해 1천400여 공직자와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박현진기자

김순호 구례군수 ‘구들장 대화’ 소통 행보

156개 마을 방문...건의사항·의견 수렴 등 현장행정 실천

김순호 구례군수가 구들장 대화로 군민들을 찾아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 행보에 나섰다. 구례군은 15일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오는 2월7일까지 8개 읍·면 156개 마을을 방문하는 ‘군수와 함께하는 구들장 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들장 대화는 김순호 군수와 주요 간부들이 마을회관,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에게 신년하례 세배를 올리면서 시작한다. 이후 마을 건의 사항 청취, 군정 제안 의견 수렴 등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들장 대화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하는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건의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즉시 민원과 현장점검 처리 민원으로 분류해 처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첫 구들장 대화가 열린 토지면에서는 ‘구만 송림 내 주민 및 관광객의 건강 증진 및 휴식 공간 설치’와 ‘피아골 브랜드 조형물 및 단풍공원 액티비티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다. 이는 주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현안들을 건의한 것으로 군

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김순호 군수는 “군민들의 이야기가 곧 구례의 미래”라며, “올해 처음으로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변경해 군민 대화를 추진하는 만큼, 군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구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례=임종길기자



김순호 구례군수가 토지면을 찾아 ‘구들장 대화’를 열고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군정 제안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담양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연말까지...지난해 1억여원 농가 경영비 절감 효과

담양군은 “최근 이상기온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소득 보전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 계획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해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지난해 임대료 50% 감면을 통해 1억

여원의 농가 경영비 절감 효과를 거두며 영세농에게 큰 도움이 됐다. 또한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 및 지난해 4월 개소한 서부지소의 농기계 추가 확보를 위해 약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트랙터를 포함한 26종 46대를 구매, 원활한 임대를 추진코자 한다. 아울러 농한기를 이용해 농기계임대사업소 회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소형건설기계(농용굴삭기, 지게차 등) 면허와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며, 농기계지원팀 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기계 안전 전문관 역량 강화 교육도 지속 추진한다. 오지마을을 위한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도 연 2회 운영해 현장 고장진단 및 점검 지원,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박광훈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 서부지소장은 “농기계는 필요한 농업인을 위한 찾아가는 임대 서비스 및 영세농, 고령인을 위한 영농 대행 등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만족도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규기자

장흥군, 한승원 생가 복원사업 본격 ‘시동’

부지 매입 완료...산책로 연계 관광콘텐츠 조성

장흥군은 15일 “회진면 신상리에 위치한 한승원 생가(사진)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생가 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승원 작가는 현대문학의 거장이자 노벨문학도시 장흥을 대표하는 문인으로 ‘아재제비바라야제’, ‘불의 딸’, ‘초의’ 등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한승원 작가의 자녀인 한강 작가가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함에 따라 부친인 한승원 작가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져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한승원 생가를 찾아오고

있다. 장흥군은 지난해부터 생가 소유주와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마침내 부지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한승원 작가의 자문을 받아 올해 내로 생가를 옛 모습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한강 작가가 아버지의 고향인 장흥에 내려왔을 때의 감성과 추억이 깃든 콘텐츠를 곁들여 관람객들에게 문학여행의 즐거움을 더할 계획이다. 장흥군은 유서 깊고 풍부한 문학자산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전국 최초 문학관광기행특구로 지정, 17년간 이



를 유지하고 있다. 한승원 생가가 복원 될 경우 이청준 생가 및 한승원 문학 산책로 등과 연계해 더욱 풍성한 문학 기행 관광코스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한승원 작가는 장흥을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한강 작가의 뿌리”라며 “생가를 노벨문학도시 장흥의 대표적인 문학 자원으로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욱기자



여수시가 지난 14일 소라면 죽림리 산들공원 부지에서 여수꿈바다어린이도서관 기공식을 개최한 가운데 건립 공사의 시작과 안전한 시공을 기원하며 첫 삽을 뜨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여주시 제공>

여수 최초 어린이도서관 건립 ‘첫 삽’

2026년 개관 예정...아동친화도시 조성 목표

여수시는 15일 “전남 소라면 죽림리 1248번지 산들공원 부지에서 여수꿈바다어린이도서관 기공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국회의원, 도·시의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도서관 건립 공사의 시작을 알리고 안전한 시공을 기원했다.

여수꿈바다어린이도서관은 오는 2026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총사업비 130억원을 투입해 2천824.56㎡,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된다. 세부시설로는 영유아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공동육아나눔터, 동백마루, 북카페, 인형극장, 옥상데크 등이 들어서며 소통과 휴식이 공존하는 개방

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전 국민 명칭 공모를 통해 ‘여수꿈바다어린이도서관’으로 확정하고 지난해 12월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다. 정기명 시장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도 책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고심 끝에 공간을 구성했다”며 “여수꿈바다어린이도서관이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아이들을 지원하고 아동친화도시 여수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장성군,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화재 예방

장성군은 15일 “오는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과수 전정가지와 고추, 참깨, 들깨대 등 발작물이다. 영농부산물을 농가에서 자체 소각하다가는 자칫 산

불, 화재 등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에 군은 산불 화재 예방 차원에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추진한다. 이달 중 접수를 마치고 2-3월께 파쇄

단을 구성해 무료로 파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지 위치가 산림과 가깝거나 고령농 등 취약농업인을 우선 지원한다. 수거한 파쇄물은 친환경 비료로도 사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박인정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은 반드시 이달 말까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영농부산물 파쇄를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기자

광양, 동계 전지훈련 방문 ‘복적’

체육 인프라·온화한 기후...훈련문의 잇따라

광양시는 15일 “동계 전지훈련팀의 잇따른 방문(사진)으로 도시에 활력이 넘치고 있다”고 밝혔다. 겨울철에도 낮 기온이 영상이며 무는 온화한 기후, 잘 갖춰진 체육 인프라,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덕분에 지난해 말 육상, 축구, 탁구, 수영 등 5개 종목에 96개 팀이 광양시 방문을 확정했으며 현재도 지속적인 방문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광양시는 지난해 대비 15%가 늘어난 규모인 100개 팀 1천500여명 유치를 목표로 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전지훈련 유치로 통해 18억원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순옥 체육과장은 “광양시는 백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해 왔다”고 그간의 성과를 강조했다. 이어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바란다”며 “광양시를 방문한 훈련팀이 불편함 없이 마음껏 훈련할 수 있도록 광양시체육회와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기자

